

코오롱플라스틱, POM 수익개선 기대

동양증권, 2/4분기에 POM 증설물량 영업 본격화 ... 저가매수 기회

동양증권은 최근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코오롱플라스틱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동양증권 박성호 연구원은 6월15일 “1/4분기 영업실적 부진은 폴리아세탈(POM) 2호기 가동 첫 분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”며 “2/4분기에는 POM 마진이 회복되고 3/4분기에는 북경 현대자동차 3공장 준공으로 판매여건이 개선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또 “현재 주가는 전고점 대비 30% 가량 하락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다”면서 “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

아울러 “우리사주 164만7000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돼 잠재매물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영업실적 개선 모멘텀을 고려할 때 매수로 접근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15>